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21년 10월 18일 월요일 (음 9월 13일) 제2880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사회적 거리두기 31일까지

도내 전역 사적모임 4명까지... 예방접종완료자 예외 적용

정부가 현 사회적 거리두기를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연장하고, 비수도권 '사적모임 4인까지(4+6) 집중완료자 포함 최대 10인까지'를 적용해 2주간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정부는 이번 거리두기 연장은 일상회복 전환을 위한 중요한 시기로, 중심 유행지역인 수도권 증가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의료체계 수요증가에 따라 채택치료를 확대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징검다리적 거리두기 기간은 오는 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체계 전환의 준비 및 시범적 운영기간으로 활용하고자, 집중완료자 중심으로 일상회복을 위한 지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에, 전북도는 정부 방침에 따라,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거리두기 3단계 지역인 전주·군산·익산·완주혁신도시(갈산리)와 2단계 지역인 정읍·남원·김제·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고창·부안·완주혁신도시(갈산리) 제외지역은 현 단계 그대로 2주간 연장한다.

이번 방역수칙 주요내용은 먼저, 도내 전 지역에서 사적모임은 집중미완료자의 경우 4명까지만 허용되고, 예방접종완료자를 포함해 10인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다.

식당·카페는 기존 3단계에서 오후 10시 이후 운영제한했으나, 0시 이후 운영제한으로 완화한다. 종교시설은

기존 3단계에서 수용인원의 20%이고, 집중완료자는 수용인원 산정시 인원수에서 제외했으며 이를 현행 유지한다.

결혼식의 경우 2단계는 집중완료자를 151명까지 추가 가능하며, 3단계는 집중완료자를 20명 추가해 최대 250명까지 가능하다. 실내·외 체육시설은 그동안 적용했던 사위실 운영제한이 이번에 해제된다. 대규모 스포츠 대회는 집중 완료자 등으로 최소인원이 참여하는 경우 개최를 허용한다.

그 밖에 영업시간 제한 완화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수칙은 정부의 단계별 방역수칙을 따른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도는 11월 단계적 일상회복 체계 전환을 대비해 외국인 방역관리와 가을철 행사행태가 많이 찾는 관광지 및 주변 유흥업소를 중점 관리하기로 했다. /유호상 기자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노조가 지난 15일 전북도의회 의정실을 찾아 전주공장 물량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선 송지용 의장과 최영심 의원 등에게 "도의회 역할이 빛을 발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물량 부족 문제 해결, 도의회 역할 컸다"

현대자동차 노조 임원진이 전주공장 물량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선 송지용 의장과 최영심 의원 등에게 "도의회 역할이 빛을 발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전주공장 위원회 주인구 의장은 지난 15일 도의회 의정실에서 "송지용 의장과 최영심 부의장께서 울산공장까지 방문, 노사 임원을 만나 전주와 울산공장이 상생할 수 있도록 통 큰 결단을 촉구하고, 전주공장의 절박한 상황을 울산지역 방송 인터뷰를 통해 전달하는 등 노사 합의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셨다"고 거듭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어, 그는 "도의회 의장과 의회의 노력으로 소형 상용차 생산이라는 좋은 결과를 얻게 됐다"며

현대차 전주공장 노조, 송지용 의장 등에 감사 표시
"울산공장 방문, 상생 결단 촉구 등 노사 합의 결정적"
지난 7일 울산공장 '스타리아' 생산 물량 이관 결정

차가 계획 중인 플리잉카, 수소모빌리티 사업이 전주공장에 우선순위로 적용될 수 있도록 전북도의회가 중앙정치권 및 행정과 협력해 가교역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최영심 의원도 이 자리에서 "현대차 전주공장 노조 임원진의 노력으로 큰 위기를 넘겼다"며 "앞으로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면서 심기일전해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송지용 의장과 최영심 부의장은 지난 9월 28일 현대차 울산공장을 긴급 방문, 울산공장 노조와 경영진을 차례로 만나 '스타리아' 물량의 전주공장 이관을 위해 노사 양측의 협조를 요청했으며, 지난 7일 울산공장 생산물량의 전주공장 이관을 결정했다. /유호상 기자

순창 시가지 지중화사업 시공사 도덕적 해이 심각

임금·자재비·장비대여료·식비 등 떼먹어
건설 시공사 "체불금 삭감해주면 지불 하겠다"
관계 공무원 "절차상 문제없다" 변명 일관



순창군 은행교에서 경찰서까지 양방향 2KM에 걸쳐 지중화사업이 완료된 모습.

순창군이 발주한 토목공사를 시공한 건설사가 준공 후에도 일용직 노동자들의 임금을 체불하고 자재비, 장비임대비, 식대 등을 지급하지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특히 이와 관련해 순창군의 무성회한 대응이 논란이 되고 있다.

순창군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높이고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순창읍사무소 앞 은행교부터 순창경찰서까지 양방향 2KM구간에 전선과 통신선을 지하에 매설 후 보도블럭과 도로포장을 복구하는 사업을 지난해 8월 시작해 올해 6월 완료했다. 이 사업에는 순창군 31억3,000만원, 한전 15억4,000만원, 6개 통신사가 7억원 등 총 53억7,0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이 사업과 관련한 전기공사와 통신공사는 별 무리 없이 마무리됐다. 문제는 마지막 공정인 토목공사를 시공한 A업체가 공사가 마무리돼 준공했음에도 임금을 체불하고 장비임대료,

자재비 등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지역업체들의 업체들은 심각한 경영 악화에 시달리고 있다. 심지어 인근 식당의 식비도 떼먹어 지역 민심까지 흉흉하다. 피해자들은 A사의 체불이행으로 인해 지난 추석을 울분 속에 보내야만 했다.

A건설사에서 일용직노동자로 일하던 S씨는 "지난 4월부터 임금이 나오지 않자 현장소장에게 지급을 요청

했다니 일시적으로 회사 자금 사정이 좋지 않다"면서 "준공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준공금을 받아서 처리해 주겠다고 약속해 놓고 신뢰를 저버렸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군 차원에서 적절한 행정절차를 밟아 그들에게 합당한 조치를 취해 다시는 그러한 건설사가 순창에 발을 붙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이에 대해 당시 공사를 책임졌던 현장소장 B씨도 "해당공사를 시공하면서 수천만원의 적자를 보게 되어서 건설사 측에서 적지금액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체불금을 업체별로 수십퍼센트(%)씩 삭감해 달라며 미수금업체 및 일용직노동자들이 건설사의 손해금을 떠안아 주기를 종용하고 있다"며, A건설사를 비난했다.

한편 순창군청 지중화사업 담당공무원 D씨는 기존의 '준공 당시 체불금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으나'는 질문에 "체불금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준공금을 지불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현재 체불금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은 해보았느냐는 질문에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금액에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행정 절차상의 문제는 없다"는 변명으로 일관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전북무형문화재 한마당축제, 26일부터 온라인 개최

'제4회 전북도무형문화재 한마당축제'가 랜선을 타고 도민들 눈 앞에 펼쳐 예정이다.

(사)전북도무형문화재연합회는 전북도의 전통문화 유산을 통해 지친 도민들의 마음을 치유하기 위한 온라인 한마당축제가 오는 26일부터 11월 22일까지 누리집(www.jommyeon.com)에서 펼쳐진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이번 한마당축제는 '천년의 기다림, 예인의 훈을 담다'라는 주제 아래 찬란한 역사의 훈이 담긴 몸짓과 소리, 그리고 작품을 통해 힘든 시기의 도민들에게 마음이 치유되고, 우리 전통에 대한 문화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축제는 무형문화재 예능 보유자와 제자들 13개 분야(48명), 기능 분야 22인(8개 작품), 문화재 보존회(7개 종목)의 참여로 다채로운 공연과 전시가 영상으로 펼쳐진다. /유호상 기자

가스안전은 가족사랑입니다. **축! 전주매일 창간**

고객의 **행복**과 **꿈**을 지키는 사람들

전북도시가스는 당신의 가스안전을 위해 24시간 깨어 있습니다.

굴착신고는 굴착시공 전 EOCs 접수로 1644-0001

- 굴착공사계획 신고
☎ 1644-0001
e www.eocs.co.kr
- 접수번호 발급
- 가스배관 및 굴착현장 표시
- 굴착공사개시 통보
- 굴착공사 시행

전북도시가스(주) 전북 전주시 덕진구 경계안길 31 / 전화 063)240-7700 www.jbcitygas.co.kr 도시가스 요금 감감 신청 안내

전북도시가스(주)에서는 사회적배려대상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에 요금을 감감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북도시가스 홈페이지를 참조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 240-7755-6)